

광
야
소
리

정 영 다 학 복 이 파
소 적 음 교 음 땅 위
년 인 세 들 을 의 웨
사 부 대 을 전 모 이
역 흥 의 변 하 트 프
이 을 화 며 청 락
다 위 시 소
한 키 년
! 며 들
에
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부

은혜의 강가로

- [] 中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려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 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의 양식으로만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디어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구름의 강

내 주의 은혜강가로 ... |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같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아...
내 주의 은혜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주 친했었던 낯 아친, 우연히 듣고 굳은 뺨을 풀어준
노래입니다. ...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8 45 .

예 배 순 서

“ ”

- 아침이슬 같은 연주 챔버팀
- 찬 양 찬양팀
- 기 도 박지은 학생
- 축하와 환영..... 박정수전도사님
- 말 씀 !도배전도사님
- 헌 금 다같이
- 주기도문 다같이

- 기다려지는 광고..... 광고팀
- 소그룹 시간 여라 !!!

만우절이죠? .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착한 사람이
일 년에 딱 한 번 거짓말하는 날이래요.

여러분들은 매일 거짓을 말하나요
아님
매일 참을 말하나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묻고 싶습니다.

내 자신과 친구들에게...

사순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을까요.



■ 사순절이란?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해야 할 절기가 있다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기쁨을 완성시킴을 기념하는 날이며 주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의 예표임을 확신하는 부활절,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 절기와 일치하는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성령강림절, 교회력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년 동안의 삶 속에서 인간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그 근원은 유대의 초막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것이다.

교회력에는 부활주일 전, 40 !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의 삶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참회하는 기간인 사순절,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 !간을 의미하는 기간으로 사랑과 평화, 기쁨과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로 구분하고 있다. 이 절기들은 사시사철 반복되는 계절에 비유한다면 위의 절기의 순서대로 겨울, 전자는 마음의 계절이고 후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계절이다. 겨울은 차고 음산하고 우울한 것 같지만 귀를 기울여 보면 차가운 겨울 바람소리 속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소리와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교회들 대부분이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달 전부터 준비하면서도 부활절은 기껏해야 한 주간 전인 고난 주간을 지키는 정도가 고작이다. 이렇게 부활절은 매우 부족하고 소홀한 준비를 해 왔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사순절(四旬節) 40 !전부터 미리 준비함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추세는 참으로 타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0이란 수는 예수께서 40 !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심, 40 년간의 광야 생활,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수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며 자신의 신앙을 재 각성하는 40 !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다면 고난의 40 ! 힘들고 냉혹한 겨울과 같은 절기일지라도 이 절기를 잘 선용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의 계절이 될 것이다.

타람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그 죄 값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9:27).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 '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도 소위 성인(聖人), 범인들의 출생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 그의 죽음이 이 세상에 출생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함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3. 유 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 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던 것이다.

40

또는 저녁 식사만 허락하되 육식은 물론 생선 정도의 육식까지도 금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새 생명의 탄생을 연상케 하는 달걀이나 우유 등의 음식까지도 규제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지켰다고 한다.

그러나 9 |기 이후 금식 규정이 완화되기 시작하여 15 |기에 와서는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 되었으나 의식적인 금식보다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통한 내적인 자기 정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접근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맛보며 주님을 본받는데 부적합한 짐착들을 제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외형적인 형식만을 닮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이면에 숨겨진 내면적인 의미를 맛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 영접한 성도들의 세례식이 있게 되는데, 세례 예비자들이 이 때 세례와 입교(入敎 · 받기 위하여 이들을 추천한 보증인들과 함께 두 주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금식과 기도로 죄의 회개와 신령한 훈련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이때 부활절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는 세례 예비자들은 물론 이미 성도로 영접된 사람들 모두 금식과 기도 생활에 힘썼다.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으며,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었다. 그러나 8 |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기 시작해 14 |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으며, 15 |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관습이 되었고,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연애 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 등도 자제되었다. , 기도 등이 권장되었다.

4. 관 습

1. 금식 기도

요즘 와서는 우리 개신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마치 로마 카톨릭의 의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도 있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동방교회는 7 : 동안 금식하게 하였으며 서방교회는 6 : 동안 금식하게 하여 의식화되어 내면의 깊은 뜻이 퇴색한 것은 인정하나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금식의 기간과 그 엄격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리고 하늘 나라의 백성 됨을 감사하며 그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돌이키게 하는 금식 기도는 초대 교회 시대부터 행해져 있었다.

오늘날 행해지는 금식 기도는 엄격했던 초기의 형태에서 많이 변형되어 절식(節食) 기도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작금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들이 신앙의 대 선배들이신 모세(24:18; 9:9; 10:10) (19:8), 그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4:2; 4:1-2) 40 ! 금식에 대한 믿음의 자세로 이 기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의 고난의 의미를 살피며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가며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성도들의 신앙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절제와 단식을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죄악을 발견하여 자백하고 사함 받는 기회로 삼아 은혜가 더욱 넘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기마에 십자가 그리기

종려나무를 태운 재 혹은 숫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풍습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 이때 사용되는 재는 지난해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 만든 것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이는 또한 아름다운 풀과 꽃이 잠깐 후면 마르고 시들 듯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고, 한 줌의 흙에서 왔던 우리도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엄숙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정비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구제와 자선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이 행해졌다. 특히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의 동참, 불의한 자신에 대한 회개 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실천에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본받아 이를 실천함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 할 것이다.

한편 어떤 곳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3 ! 정도의 ' (canival) · 거행되었었는데 이 사육제는 원래 ' (carni), ' (vale)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교적인 영향을 받은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는 사순절과는 대조적으로 술과 고기를 먹었으며, 가장 행렬 등의 인간의 쾌락 본능을 자극하는 행사들이 행해졌으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확산되어 수개월 동안 행해지는 유럽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1517 ! 종교 개혁 이후 종교 개혁자들은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의식 절차들을 폐지했는데, 이때 사순절에 관계된 많은 의식들도 간소화 내지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회개의 시기로 지켰던 중세 교회의 사상은 받아들여 공동기도문 중 사순절 기도문의 주제를 회개로 삼는 등, 계속해서 이 절기를 기념하고 있다.



나 또한 당기 일흔이면
셋으며,
내 심경의 문둥병은
깨끗해지겠습니까?

cal101@elmu.hosanna.net

■ 사순절 행사

그러면 교회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첫째,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성결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 주일을 범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와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 즉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죄 자백에 주력하여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해 가는 순례의 기간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죽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다. 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여야 한다.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금식함으로써 자신을 절제하고, . 오락을 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모아진 금액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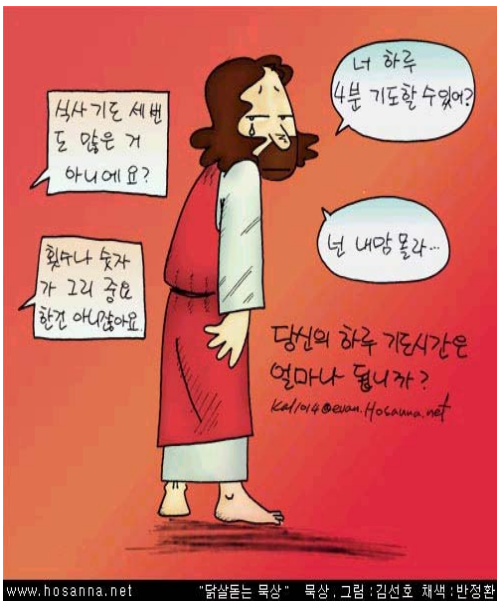
셋째, 원래 사순절이 부활절 세례를 받기 위하여 자원자를 준비시키는 기간인 것을 감안하여 이 기간 동안 성경공부에 빠지지 말고 세례와 학습자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전도를 함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친구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는 일도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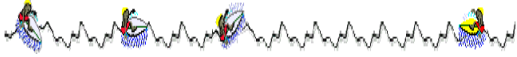
* 4:9-10 " 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내일 웃기 위해 오늘 울고 내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 근심하는 삶이 사순절이다. 기독교는 애통으로 씨 뿌리고 감사와 환희로 열매를 맺는다

* " "
(T.G.I.F - Thanks God ! It's Friday)
그러나 곧 주일이 다가 온다. 영광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금요일과 같은 절기가 곧 사순절이 아닐는지?

출처:<http://www.immanuel21.org/>



친구들 보세요.....



-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처럼 광고 후 소그룹만 두란노홀에 남고 모두 조용하게 나아주시기를
- 고등부다윗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멋진 권용갑전도사님에게 연락해주세요. (016-378-5851)
- 새로운 학생과 소그룹편성이 안된 학생은 예배 후 뒤쪽 < Welcome > 글자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생님들 보세요.....



- 예배후 교사모임이 있습니다. 302 11 | 20



www.hosanna.net "달심들은 무상" 묵상, 그림: 김선호 채색: 반정환

• 1등부 예배
매주일 선교관 두란노홀 08:45

• !기시는 분들
신도 배 전도사님
권용갑 전도사님
박정수 전도사님

• !야소리꾼들
광야소리꾼이 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이은주 (5mercy@korea.com)